

[일하기 좋은 도시 창원을 위한 열린 세미나]

2019년 11월 27일(수) 16시 창원컨벤션센터 605호

- 1부 -

발제 광소희(청년층 좋은 일자리와 비정규직 지원 방안)

1.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포용적 소득주도 경제성장 구현,
좋은 일자리는 청년에게 중요함. 따라서 청년층(19세~34세) 타겟팅.
창원지역 청년의 고용상황 파악 목적
좋은 일자리 개념(기존연구활용)

2) 창원 청년 고용 구조 분석

- ① 창원 청년층 생산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② 창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보다는 낮지만 증가추세임.
- ③ 창원의 고용률은 증가추세
- ④ 창원 소재 사업체 취업자 현황 - 창원 대졸 취업자중, 창원 태생은 절반, 창원거주 인원은 88.7%, 창원 소재 고졸 출신은 58.7%임
- ⑤ 대졸 청년 근로자의 일반 특징 - 창원은 전국에 비해 공학계열 출신이 많음, 창원에 근무하는 대졸 근로자는 경남지역 대학 출신이 57%, 전국에 비해 제조업 종사자 많음, 창원 지역의 근로 소득 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음, 창원 대졸 청년 취업자는 사회적 평판, 흥미 일치, 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⑥ 창원의 청년들은 소규모 사업체라도 일하고 싶다고 하는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⑦ 창원의 청년들은 학력, 학벌,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 ⑧ 창원의 청년들은 소규모 사업체 희망 비율이 높아 지역의 중소기업체와 연계필요

3) 창원의 좋은 일자리 개념 현황

- ① 좋은 일자리 개념이란 ILO의 괜찮은 일자리 측정을 위한 지표와 유럽 위원회가 정의한 고용의 질에 관한 지표를 인용, 최근은 질적인 측면의 접근 요구
- ② 창원의 좋은일자리(전연령)는 전국에 비해 부족, 하락 추세
- ③ 창원의 좋은일자리(청년층)는 양호한 편.
- ④ 창원 지역의 좋은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 전문 과학 등의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4) 창원 지역 청년층 좋은일자리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 ① 좋은 일자리의 구성요소 중, 고용안정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

② 좋은 일자리의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감독 강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답변함.

5) 창원시 청년층 좋은 일자리 인식 정성조사

① 졸업후 취업준비생과 대학재학생의 좋은 일자리 인식이 다름. 졸업후 취업준비생들은 고용안정성, 대학재학생은 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인식.

6) 청년층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안)

① 좋은 일터 구현, 매력적인 청년일자리 확충, 청년 좋은일자리 진입기회 확대

2. 창원시 비정규직 현황 및 지원방안

1) 연구 배경 및 목적

- ①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 급증
- ②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별 조례 제정등 차별 처우에 대한 대책을 다양한 각도로 지원 중
- ③ 창원시도 '창원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내용 시행중

2) 비정규직 개념 및 법 제도

①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근로등이 해당

3) 창원의 비정규직 현황 및 규모

- ① 창원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
- ② 남녀 비정규직 비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 ③ 창원의 비정규직은 중장년 층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4)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 ① 여성은 파트타임, 남성은 파견 영역이 많음.
- ② 여성은 서비스판매종사자, 남성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음.
- ③ 비정규직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잘모름 - 홍보 필요

5) 지자체별 비정규직 정책 사례

- ① 지자체의 비정규직지원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임
- ②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3대 기본 방향 및 10대 방안(자료 참고)

-2부-

토론 강지윤

'청년 노동자의 일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 ① 청년세대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이해 필요

- ②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음
- ③ 청년 일자리의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 ④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
- ⑤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역시 떨어짐
- ⑥ 일자리의 수 등 고용지표에만 매몰된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 필요
- ⑦ 청년들은 노동형태보다 삶의 형태를 중요시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함. 정책 반영 필요
- ⑧ 노동조합에 조직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음. 노동관계법 개정필요
- ⑨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포인트 제도 도입 필요
- ⑩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도입 필요

발제 곽소희

- ① 청년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일자리가 어떤 형태의 일자리 인가임.
- ② 복지 포인트 검토 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행 하지 못함.
- ③ 프리랜서 같은 경우, 실태조사의 어려움이 컸음
- ④ 청년 구직수당은 창원에서도 시행하고 있음
- 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현재 매우 심각, 모두의 노력 필요. 중앙정부는 제도개선, 청년들은 차이를 메워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

토론 김유현

- ① 창원의 청년 유출, 실업 문제는 매우 심각. 자연감소 보다는 인구 이동의 요인이 크다.
- ② 실질적인 청년 취업 지원 방안 부족, 경쟁 과열, 불공정 취업 증가.
- ③ 빈부격차, 지역격차 심화 우려
- ④ 따라서 일자리의 개념(생계수단으로서) 바뀌어야 함.
- 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
- ⑥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사회적 경제임

토론 이승철(유한회사 예종 대표)

- ① 뮤지션 같은 경우, 직장이 있는 경우가 많음. 다른 지역보다 창원의 임금이 낮음
- ② 극단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기 힘들
- ③ 예술인들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의 범규에 포함되기 힘들
- ④ 대부분의 문화 예술 종사자는 강사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음
- ⑤ 따라서, 예술인의 경우 자신의 창작물을 사고파는 것으로 수익을 냄. 그러나 플랫폼이 부족
- ⑥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